

國際電氣通信의 競爭에 대한 一考

趙 琳 坤

動向分析室

세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국제간의 통화량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통화량 중에서도 데이터통신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신의 독점적 운영체제로는 늘어나는 국제통신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등을 만회하기 위하여 국제통신과 정보서비스부문에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과 쌍무협상을 진행하여 세나라간에는 국제통신의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영국과 일본이 국제통신의 경쟁을 도입한 데에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앞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국제통신에 대비하여 각각 아시아와 유럽의 국제통신거점이 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여러국가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전기통신이 앞으로의 서비스경제 또는 정보경제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는 인식하에, 이들 국가들이 일정지역의 국제통신거점이 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국제통신 자유화의 배경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통신 경쟁의 확산에 내재되어 있는 선진국의 전략과 지역거점으로 성장하려는 나라들의 전략을 알아보려고 한다.

目 次

- | | |
|------------------------------|------------------------|
| I. 國際通信 競爭 導入에 대한 背景 | IV. 大西洋 區間에서 英國의 主要 戰略 |
| II. 서비스의 貿易에 관한 先進國과 開途國의 見解 | V. 太平洋 區間에서 日本 등의 戰略 |
| III. 國際通信 競爭地域의 漸進的 擴散 | VI. 맺음말 |

I. 國際通信 競爭 導入에 대한 背景

국제통신은 대부분 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통신의 대부분은 아직 음성통신이다. 국제통신은 상품 및 자본의 교류가 증대되고 기업들의 다국적 활동이 증가되

초점

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이하 TNCs : Transnational Companies)¹⁾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터통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TNCs는 여러나라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많은 정보를 교환·처리·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국적의 확인, 안전보장, 通商(通關)등에 축소되고, 심지어 이데올로기를 달리해서 대립을 계속해 왔던 미국과 소련도 새로운 데탕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경의 개념이 축소되고, 규제완화, 민영화정책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TNCs의 활동무대는 더욱 넓어져 국제통신에 대한 수요 특히 데이터통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TNCs는 세계적 시장의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생산을 함과 동시에 고객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 다양해지고 성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TNCs는 해외자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TNCs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해졌다.²⁾

TNCs의 국제통화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통신의 요금은 전기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TNCs는 비싼 국제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기통신의 독점적 운영형태를 경쟁이라는 형태로 전환하여 기업의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통신에서 경쟁이 도입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³⁾ 더 나아가 현재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1) TNCs는 과거의 MNCs(MNCs : Multinational Companies)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MNCs가 마치 국적이 다수인 것으로 느껴지는 혼란이 있는 반면, TNCs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다국적기업의 현상에 보다 부합된 명칭이다.

“多國籍企業におけ國際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の構築,” 「ITU 연구」, 1989.

2) 日本 ITU 協會, p.3.

3) 전기통신에 대한 기업의 경쟁 요구는 국내 전기통신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T&T의 분할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업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영국, 일본에 있어서도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가 주택용 소비자보다는 기업에 많이 돌아갔다는 데에서 알 수 있으며 주택용소비자의 보호라는 문제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었다. 최근 일본 NTT 분할 논쟁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분할로 인해 NTT로부터 기존에 제공받았던 다양한 통신패키지상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와 모순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일본의 대세가 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비롯된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통신비를 줄이기 위하여 분할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신의 경쟁 도입 문제에 TNCs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TNCs 의 세계적 활동에 필수적 기반구조인 전기통신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독점적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TNCs 의 세계적 운영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신에 있어서 주요 사용자 내지는 수요자인 TNCs 가 국제통신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제통신의 공급자인 국제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송설비가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FCC 가 몇년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위성사업자가 소유한 위성의 트랜스폰더는 절반도 사용되지 않았었다.⁴⁾ 이러한 통신위성의 과잉공급은 1972년 “Open Sky Policy”로 미국내 위성통신사업의 경쟁이 이루어져 복수의 위성통신사업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내 위성통신설비의 공급과잉으로 미국내 위성통신사업자는 국제로의 진출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CC 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⁵⁾ 이러한 미국 위성통신사업자의 국제진출은 PTT 의 국제통신 독점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TNCs 와 국제통신사업자가 경쟁을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ISDN 을 실현할 전망인데 ISDN 이 이들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 첫째, 국가가 통제하는 ISDN 이 구축되면 민간 정보네트워크는 과잉설비가 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정보서비스나 데이터처리 기기 공급자의 국제적진출이 타격을 받게된다. 둘째, TNCs 에게는 ISDN 의 도입이 TNCs 가 지불하는 통신비를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TNCs 는 PTT 로부터 회선을 입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TNCs 가 유통시키는 정보량만큼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않다. ISDN 이 도입되면 요금이 비트(bits) 단위로 계산이 될 수있기 때문에 TNCs 가 지불해야 될 요금은 올라가기가 쉽다. 이상과 같은 이유도 이들이 국제통신의 자유화를 주장하게된 배경이다.

국제통신의 주요공급자와 주요수요자가 국제통신의 경쟁도입을 원하고 있는데 왜 국제통신분야에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이를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정부는 국제통신을 자신

4) 이상철, 「통신위성의 세계적 현황과 도입계획에 관한 연구」, 86전기통신학술연구과제, 1986, pp.32~33.

5) KISDI,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국제경제문제연구회 보고서」, 1989. 4, pp.27~28 이상과 같은 내용은 1981년의 “국경초월서비스 裁定”, 1982년의 “트랜스폰더 판매 裁定”, 1984년의 “INTELSAT 계 지구국 소유권 裁定” 등으로 이루어졌다.

의 통제하에 두고 독점적인 운영체제를 고집하고 있는가? 이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는 국제통신의 경쟁으로 야기될 경제적·문화적 영향, 국가안전, 국가주권 등의 문제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불안에 시간을 보낼만큼 한가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전후 세계경제를 주름잡아온 미국경제가 최근 국제수지 악화, 달러貨 약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내에서의 위치가 하락하자 미국 정부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대대적인 對外開放政策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GATT 내 다자간 협상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일본, EC 등과는 쌍무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아직 국제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 국제통신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하락한 미국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국제통신수요자, 국제통신사업⁶⁾ 그리고 정부가 이유는 다르지만 국제통신에 있어서 경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강력한 국제통신자유화 주창자로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이다.

II. 서비스 貿易에 관한 先進國과 開途國의 見解

최근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국제무역협상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서비스가 지역적인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무역이란 직접투자의 형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통신과 컴퓨터 기술이 융합·발전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기통신과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오늘날의 금융서비스나 관광서비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는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기 시작하여 많은 서비스가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무역이 가능하여졌다.

서비스 무역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개념정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에 대한 GATT 내 협상에서는 많은 어려움

6) 미국 전기통신사업자는 특히 국제 VAN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서 최근 일본 국제통신시장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자 미국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 VAN 부문에 있어서 일본과 합작사업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TNCs의 정보유통 중에서 미국의 국제통신사업자가 TNCs의 세계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 있지만 비차별성 (Non - discrimination) 원칙, 투명성 (Transparency), 동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점진적자유화 (a principle of progressive liberalization) 등 많은 일반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설립권 (Rights of establishment)은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서비스 무역이 불가능한 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투자의 허용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협상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 대립은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화를 이루자는 선진국과 보호주의를 옹호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간에도 많은 의견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국제통신의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통신의 자유화 요구는 국제통신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매우 유망한 사업이며, 서비스 무역의 기반구조를 형성한다는 인식하에, 선진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다른 나라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반대한 나라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개도국이었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농산물과 공산물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한 GATT 내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 주장의 이면에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국가의 안전성과 국가주권 그리고 문화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와 같은 TNCs의 국제화, 거대화로 인하여 개도국이 산업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경험도 개도국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⁷⁾

그러나 선진국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개도국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서비스무역 협상의 어려움이 있다.⁸⁾

7) 이러한 예는 TNCs가 국제적으로 유통시키는 Stateless Mone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TNCs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국제통화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개도국과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일관적인 금융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되었다.

8) HDTV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기술 표준방식을 계속 찬성하여 오다가 일본의 세계시장 장악을 우려하여 갑자기 일본의 표준방식에 반대하고 자신의 표준방식을 새로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자유화에 역행되는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일부 개도국에서는 자유화를 원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Ⅲ. 國際通信 競爭地域의 漸進的 擴散

국제통신 자유화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통신자유화의 주창자는 미국이 있으나 국제통신의 경쟁영역은 지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은 주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상업중심지를 축으로 한 통화량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량이 적은 지역간 국제통신에 있어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세지역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국제통신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통신 경쟁도입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미국, 일본, 영국 간에 쌍무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통신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해 국경간 정보의 자유유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신분야의 경쟁도입은 국제통신의 중심지였던 미국 위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국제시장에서의 첨단기술을 응용한 정보서비스의 경우 미국정보서비스기업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도입은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며 셋째, 외국기업보다는 미국기업이 이 부문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이 미국이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술평가국 보고서(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Report)는 미국의 통신사업자, VAN 사업자, 민간 네트워크를 소유한 TNCs 가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조사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쌍무협상이다. 쌍무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은 다자간협상보다는 상당한 정책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쌍무협상에서 합의가 된 사항은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쌍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자간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협상국을 분리시켜 일대일로 정복하는 쌍무협상은 북대서양(North Atlantic)과 아시아·태평양(Asia - Pacific)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전략이 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이미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하였는데 영국은 국제통신 서비스시장에 있어서 BTI (British Telecom International)이외에 Mercury (C&W 소유)를 허가하였다. 또 일본 국제전신전화(KDD) 역시 이미 여러 사업자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일본 규제정책의 변화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반영되어 있다. 먼저 일본은 外國爲替管理法(외국환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은행과 금융회사의 점진적 규제완화를 꾀하고 있는데 정

보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 규제완화를 취하였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입개방 압력을 받아왔었고, 일본 경제의 국제화를 피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세나라 중 일본은 높은 경제적 지위나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일본 경제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일본, 영국에서 국제통신분야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경쟁의 도입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이행을 꾀하며 국제적으로는 정보산업과 기계제조업 그리고 전기통신에 크게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 경쟁이 도입된 것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의한 것도 경쟁 도입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국가적 목표도 경쟁을 도입한 하나의 이유이다.

IV. 大西洋 區間에서 英國의 主要 戰略

북미와 유럽의 국제통신 통화량은 대륙간 통화량 중 가장 많은 구간이다. INTEL-SAT의 수입중 약 67%가 바로 이구간에서 얻어지고 있고 이중 유럽과 미국사이의 통화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각국은 유럽의 국제통신 중심지가 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 각국은 유럽에서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미국 TNCs에 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대서양간 국제통신 통화량이 제일 많은데 영국은 미국과 언어도 같고 상업적 관행도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투자가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BTI가 유럽과 미국간의 통화량중계를 하기 위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요금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영국은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통신교환 노드(switching node)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表 1> 임차회선 요금의 각국 비교

국 가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스페인	스위스
단위요금(100)	100	36	43	104	115	182

* 독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자료 : John V. Langdal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Trade in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Sep. 1989, p.213.

영국은 이러한 교환 중계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VAN 서비스에 있어서도 유럽내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VAN 과 국내 VAN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내에서 전기통신의 중심적 위치를 굳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기타 유럽국가에서도 약간의 경쟁적 조치가 단행되고 있지만 영국의 위치에 도전할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점에서 아일랜드의 움직임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아일랜드 역시 미국 TNCs 의 국제통신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서양간 국제통신 교환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일랜드가 대서양 광케이블 중 민간 네트워크에 속하는 PTAT-1과 연결하려는 것도 이와같은 의도이다. 게다가 미국의 Hughes 항공사도 80:20의 지분으로 민간 통신 위성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서 아일랜드의 통신거점정책은 영국의 거점정책에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영국이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BTI가 낮은 요금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TNCs의 유럽사무국이 많은데다가 런던은 뉴욕, 동경과 함께 세계 3대 금융도시 중의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거래장소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과 금융시장은 점점 현대의 전기통신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영국의 정보서비스 우위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영국이 전기통신부문에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를 도입한 이유는 영국을 정보네트워크의 유럽적, 세계적 중심지로서 만들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영국이 다른 유럽국가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프랑스, 서독,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는 모두 주요 서비스 수출업자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영국이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1992년 유럽 단일시장 형성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유럽시장에서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의 대규모화가 필수적이므로 많은 합병과 인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거대유럽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여진다. 두번째로 많은 비유럽계 TNCs가 유럽내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유럽단일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V. 太平洋 區間에서 日本 등의 戰略

아시아·태평양 구간의 통화량은 대서양구간 통화량의 1/6밖에 되지 않지만 최근 이

지역 통화량의 성장율은 년 25~30%로서 대서양 구간의 15~20%를 상회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구간의 국제 통화량의 비중을 보면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신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적 제약으로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본의 국제전화통화량 중 팩시밀리가 50%나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KDD의 요금이 비싸고 아직은 일본경제의 국제화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구간에는 현재 INTELSAT가 주요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INTELSAT의 위치는 1990년대에 계획된 광케이블 공사가 끝나면 국제전송용량의 과잉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의 아시아·태평양구간의 광케이블은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북태평양구간이었지만 많은 논쟁끝에 이와 경쟁적인 회선이 민간 네트워크로 건설되고 있다. 이 사업은 C&W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는데 C&W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국제통신네트워크(international leased networks)에 대한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도 국제통화량이 급속히 증대하리라는 예측하에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광케이블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많은 TNCs의 데이터처리를 맡고 있어서 국제통신의 지역적 중심지로서 큰 활동을 해왔는데 여기에는 KDD의 요금이 비싼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일본의 국내·국제 전기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일본의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일본기업의 국제화는 일본이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전기통신중심국이 되게할 가능성이 짙으나 홍콩은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중국과 늘어나는 관계를 볼 때 주요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은 계속 될 것이다.

싱가포르와 호주 역시 국제 임차회선에 대한 지역중심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제 전기통신의 중심지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많은 정보서비스나 정보기기산업을 유치하여 국제 전기통신에 있어서 지역중심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⁹⁾

9) John V. Langdal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Trade in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Sep. 1989, pp.218~219. 호주에서도 많은 사용자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와 남태평양제도를 연결하기 위해 많은 임차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VI. 맺음말

전기통신이 서비스경제 또는 정보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1990년대에는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신영역에서의 경쟁도입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TNCs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TNCs의 생산과 국제화와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국제통신에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려는 조치는 그들이 예상한 대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국가간에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따라 보호주의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일부 산업에 있어서 생산의 국제화를 요구하는 세계적 動因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통신과 서비스산업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국가안전과 국가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진국이 위성방송, 비디오텍스, HDTV에 대한 상이한 표준을 제시하여 자국의 거대기업을 보호하고 기기사용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듯이 최근 기기산업에서 일어나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적 이익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정보의 자유유통은 경시될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서비스무역과 국제통신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유통을 주장하면서도 정보기기에 대한 상이한 표준을 내세우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정보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지 역시 불분명하다. 미국의 기술평가국은 미국의 건설서비스사업이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 많은 나라에게 잠식당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보서비스기업이 고도의 전자정보시스템에 의존하는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적 우위로 인해 다른나라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정보기술의 응용에 있어서 미국에 뒤진다고 하여도 일본의 은행, 컴퓨터서비스기업, 기타정보서비스기업은 기존에 일본기업이 가진 상업적 자원과 제조회사를 근거로 하여 그들의 국제적 위치를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이러한 면에 많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